

어미 ‘-어’의 성격과 기능*

구종남**

|| 차례 ||

- I. 서론
- II. ‘-어’의 내재적 속성과 부차적 기능
 - 1. ‘-어’의 다양한 용법 및 ‘-어’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
 - 2. ‘-어’의 내재적 기능과 부차적 기능
 - 1) 접속 구성에서의 ‘-어’
 - 2) 보조용언 구성에서의 ‘-어’
 - 3) 합성동사 구성에서의 ‘-어’
 - 4) 종결어미에서의 ‘-어’
 - 5) ‘-어’의 내재적 속성/기능과 부차적 기능
 - 6) ‘-어’의 완료상 기능 여부
- III. 결론

【국문초록】

‘-어’는 접속문 구성, 합성동사 구성, 보조용언 구성, ‘-어 하다’ 구성에 쓰이고, 종결어미 ‘-어’의 경우도 많은 논자들이 다른 경우의 ‘-어’와 기원상 같은 것으로 본다. 본고는 어미 ‘-어’를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본질적, 내재적 속성을 구명하고, 각 구성에서 ‘-어’가 수행하는 기능이 어떻게 이 속성으로부터 원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¹⁾²⁾

‘-어’에 대해서는 최현배(1937) 이후 여러 논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이의 의미 기능과 이것이 참여하는 형태·통사적 구성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는 ‘-어’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어’의 본질적인 속성을 밝히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 이것의 어떠한 내재적 속성으로 인하여 여러 구성/환경에서 쓰일 수 있게 되었는지, 나아가 ‘-어’는 각기 다른 출현 환경에서 어떤 기능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유기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여러 구성/환경에서 나타나는 ‘-어’의 환경 중립적인 내재적 속성과 기능은 ‘무의미성’과 용언형의 ‘성립’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어’가 쓰이는 각 구성/위치에서 나타나는 내재적인 속성 이외의 기능과 자질은 모두 이것이 놓이는 형태·통사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에서 ‘-어’의 ‘사태’와 관련된 성립 기능, 접속 구성에서 ‘-어’의 [관련적] 자질, 보조용언과 합성동사에서 ‘-어’의 의미 통합 기능, 종결어미에서 ‘-어’의 문장 종결소로서의 기능은 모두 언어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어’의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는 ‘-어’가 완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기왕의 주장을 비판하고 ‘-어’는 그 자체로는 완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며 완결적 기능은 순차 나열에서 오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 내재적 속성, 무의미성, 사태 성립, 관련적, 완료

I. 서론

본고는 어미 ‘-어’를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본질적, 내재적 속성을 구명하고, 각 구성에서 ‘-어’가 수행하는 기능이 어떻게 이 속성으로부터 원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어’는 접속문 구성, 합성동사 구성, 보조용언 구성, ‘-어 하다’ 구성에 쓰이고, 종결어미 ‘-어’의 경우도 많은 논자들이 다른 경우의 ‘-어’와 기원상 같은 것으로 본다. 이들 모든 경우의 ‘-어’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는 성격이 다른 형태, 통사적 환경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물론 각 구성에 나타나는 어미 ‘-어’를 각기 상이한 동음형태소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 형태적

동일성과 이들 구성에서 '-어'의 기능적 관련성 및 구문들 간의 파생적 관련성 등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논자들이 '-어'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는 Ramstedt(1939 ; 89-91)에서 완료의 부동사(Converbum perfecti)로 주장되었다. 그 이전 최현배(1937)에서 합동적 용법, 완성적 용법의 제1 부사형, '이유'를 나타내는 사실 구속형, '순차 나열'로 분석되었으며 '-어'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 논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이의 의미 기능과 이것이 참여하는 형태·통사적 구성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는 '-어'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어'의 본질적인 속성을 밝히고, 이것의 어떠한 내재적 속성으로 인하여 여러 구성/환경에서 쓰일 수 있게 되었는지, 나아가 '-어'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어떤 기능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설명되지 못했다. 또한 '-어' 접속 구성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어떻게 다양한 의미 관계로 해석되는지, '-어'가 완료의 기능을 갖는지, 왜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 앞에 시제나 양태 요소가 통합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문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바, 다양한 구성/환경에서의 '-어'의 특성과 기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환경에서 쓰이는 '-어'가 동일한 형태소라면, 이들 모든 구성/환경에서 '-어'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어'가 갖는 본질적인 내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성을 찾는 일이다. 이전 논의에서 '-어'의 성격과 관련하여, 허형태소(dummy morpheme), 형태론적 폐쇄 요소, 사태의 유지 기능 등과 같은 견해가 제시된 바 있었다. '-어'가 특별한 기능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이를 허형태소, 형태론적 폐쇄 요소라 일컫는다 해도, '-어'가 와야 할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바, 그 본질적 속성과 기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설령 ‘-어’의 기본 속성에 대한 이들 규정이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이런 규정과는 별개로 ‘-어’의 이런 속성이 ‘-어’가 출현하는 각 구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여 ‘-어’가 나타나는 모든 구문이 이 ‘-어’의 기본 속성으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접속구성에서는 ‘-어’의 어떤 내재적 속성으로 인하여 선/후행절이 다양한 의미 관계로 해석되며, 합성동사 구성에서는 ‘-어’가 어떤 원리로 두 동사가 결합되어 이들이 단일 사건으로 개념화되고,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보조용언이 선행명제와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어 보조용언이 상적 기능이나 양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종결어미로 쓰이는 ‘-어’가 이들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것이 다양한 의향법 어미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경우 시상 요소와의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어’에 대한 설명적 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어’가 출현하는 모든 구성/환경에 나타나는 이의 본질적 속성과 기능이 무엇인지 밝히고, 각 구성/환경에서 ‘-어’는 그 내재적 속성과 기능 외에 어떤 부수적인 기능을 획득하여 그 자체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논함으로써 ‘-어’의 성격과 기능 및 이것이 출현하는 구문에 대해 원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어’의 내재적 속성과 부차적 기능

1. ‘-어’의 다양한 용법 및 ‘-어’의 기능에 대한 이전의 논의 주지하다시피 ‘-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성/환경에 나타난다.

- (1) 가. 미자는 도서관에 가 이로를 만났다.
나. 연희는 길이 막혀 학교에 늦었다.
- (2) 기어가다 잡아당기다, 건너뛰다, 뛰어놀다, 휘어잡다.
- (3) 일호는 미국에 가 보았다.
- (4) 좋아하다, 지겨워하다. 귀여워하다, 부러워하다.
- (5) 가. 주희가 책을 읽어,
나. 주희가 책을 읽어?
다. 주희야, 책 좀 읽어!
라. 주희야, 우리 같이 책 읽어.

'-어'는 (1가, 나)에서는 연결어미로 쓰였고, (2)에서는 합성동사의 연결 요소로, (3)에서는 보조동사 구문에서 소위 보조적 연결어미로 쓰였다. 이들 '-어'는 각각 최현배(1980 : 286-317)에서 각기 순차나열(1가), 사실구속(1나), 제1부사형(합동적 용법(2), 완성적 용법(3))으로 기술하고 있다.¹⁾ (4)의 '-어'는 '-어 하다' 구성의 '-어'로서 (2)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의 참여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 (5)의 '-어'는 종결어미로 쓰인 것이다. 이들 구성의 '-어'를 다른 '-어'들과 직접적인 의미 기능적 관련성이 없다고 파악하여 별개 형태소로 볼 수도 있고, 형태가 동일하고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기원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1-5)의 구성에 쓰이는 '-어'를 다기능적인 성격을 갖는 동일한 형태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에 대한 이런 논의 중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검토해 보기로 한다.

Ramstedt(1939 : 89-91)에서는 '-어 하다'의 '-어', 종결어미의 '-어'를

1) 최현배(1937/1980)에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예로 든 것들은 모두 합성동사들이다. 사전에 등재된 '-어 하다'가 결합된 합성동사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어 하다'는 접미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많은 상태성을 나타내는 용언에 결합하여 동작동사로 만든다. 본고에서는 어휘화되지 않은 '-어 하다' 구성은 다루지 않는다.

포함하여 모든 ‘-어’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접속문과 보조용언 구성에서 ‘-어’의 기능은 선행동사의 행동이 후행동사의 행동보다 앞섬을 나타내는 완료의 부동사로 기술하고 있다. 임홍빈(1975)에서는 접속 구성에서 ‘-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는 중립적인 것인바, 이는 ‘-어’가 부정법과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보조용언 구성과 ‘-어 하다’ 구성에서도 ‘-어’는 ‘-음’, ‘-기’와 동일한 명사화소는 아니지만 명사절이나 명사 상당 성분을 이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가 부사적 기능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런 특성을 갖는 것도 ‘-어’가 부정법 어미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가 말하는 부정법은 접속 구성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서 ‘-어’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관계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Ramstedt(1939) 이후 ‘-어’의 ‘완료’로서의 의미를 주장하는 견해가 이어졌다. 성기철(1972)에서는 ‘-어’가 ‘완료(가짐)’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서태룡(1987)에서도 ‘-어’가 완료의 기능도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시형(1990 : 7)에서는 ‘-어’의 기능을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론적 관여성을 갖는 것을 나타내는 [-방백] 자질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어’의 완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어’의 완료의 소성을 부여하는 것은 화용론적인 것이며 ‘-어’의 본질적 소성은 아니라고 보았다.

서정수(1982 : 65-67)에서는 접속문에서 ‘-어’는 ‘-어서’의 변이 형태로 보고, 이 때 ‘-어서’의 의미 기능을 인과적 연결, 한시적 연결(때) 계기-한정적 연결로 보는데, 이 세 가지 의미는 선행 용언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V1이 [+상태] 자질이면 인과적 연결이나 한시적 연결의 기능을 보이고 [-상태] 자질을 가지면 계기-한정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어/어서’의 기본 의미는 ‘가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성동사와 보조용언의 경우 이들은 복합용언을 형성하므로 ‘-어’의 뜻은 따로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가 선/후행 동사를 통사·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해 줄 뿐, 분명한 의미 기능은 갖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 제시되었다(임홍빈 1975, 김승곤 1978, 심재기 1982, 서태룡 1987). 접속문에서의 '-어'는 순차적/계기적 나열의 의미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경우도 다수 있다(최재희 1989, 전혜영 1989). 그러나 '-어'의 나열적 기능에 과연 시간적 개념이 개입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숙희(1992)에서는 연속동사 구성(접속 구성,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의 '-어'를 의미나 범주적 가치를 갖지 않는 허형태소(dummy morpheme)로 보았고, 정태구(1993 : 14)는 '-어'를 의미적 내용(semantic content)을 갖지 못하고 형태적 폐쇄(morphological closure)의 목적을 위해 결합되는 접미사로 보았다. 한편 남미혜(1996 : 63)에서는 '-어'가 '상태 유지'의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³⁾ 강현화(1995)에서는 접속 구성,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에 나타나는 '-어'가 통사적인 특성에서 단단계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성이 '-어' 자체에서 기인하는지 동사의 연결방식에서 기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본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어'의 속성이 상이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용어로 파악되었지만 '-어'의 중요한 성격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와 관련된 논의에서 주장된 핵심적이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는 내재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허형태소, 형태론적 단합 어미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어'는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긴밀하게 관련시켜 준다. 셋째, 접속 구성에서 '-어'는 순차 나열적 특성을 갖는다. 넷째, '-어'는 '가짐'이나 '상태유지' 의미를 내재적으로 갖는다. 다섯째, '-어'의

3) 사실 '-어'가 상태 유지의 기능을 갖는다는 견해는 고영근(1993)에서 제시된 견해다. 그는 '-어'의 의미가 '어떤 일의 결과 상태 지속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완료 기능 여부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 여섯째, 접속 구성의 ‘-어’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전의 논의에서 ‘-어’의 속성이 다 파악된 것도 아니며, 파악된 ‘-어’의 속성에 관한 기술은 ‘-어’가 출현하는 모든 환경에 적용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모든 구성/환경의 ‘-어’가 형태, 통사, 의미 기능 면에서 유기적으로 설명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 어미가 출현하는 모든 구성/환경에서 발휘되는 내재적 속성을 명료하고 구체적인 술어로 밝혀내는 것이 ‘-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본다. 이 속성이 밝혀지면 어떻게 ‘-어’가 다양한 구성에 나타날 수 있고,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를 긴밀히 관련시키는지, 또한 과연 ‘-어’가 순차적 나열 기능을 가지며, 완료의 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어’가 접속 구성에서 어떻게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밝혀질 수 있다. 이제 각 구성에서 ‘-어’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구성/환경에서 ‘-어’가 갖는 내재적 속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내재적 속성은 ‘-어’가 나타내는 구성/환경에서 기인되는 어떤 부수적 자질을 획득할 수 있어 그 구성/환경에서 그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2. ‘-어’의 내재적 기능과 부차적 기능

1) 접속 구성에서의 ‘-어’

다양한 구성/환경에 나타나는 ‘-어’의 본질적인 내재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어’의 관계적 의미가 드러나는 접속문에서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조용언 구성, 합성용언 구성과는 달리 접속문 구성은 내재적 의미에 기초하여 문맥에 의해 다른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어’의 내재적 속성(의미)은 모든 문맥적 의미를 참고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 (6) 가. 철수는 집에 가 밥을 먹었다.
 나. 철수는 밥을 먹어 집에 간다.

(6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계기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어'는 소위 최현배(1937)에서 제시된 나열(순차 나열)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6가)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도치한 (6나)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6가)에서는 논리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했던 '-어'가 (6나)에서는 이유로 해석되는 것이다.

- (7) 가. 밤 10시가 되어 회의가 끝난다.
 나. 철수가 침을 발라 우표를 붙인다.
 다. 주희가 가족을 찾아 한국에 왔다.

접속문 (7가-다)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선행절과 후행절간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7가)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시간적 배경(때)을 나타내고 (7나)에서는 방법을, (7다)에서는 목적을 나타낸다. 위에서 보듯이 '-어'는 접속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여타의 접속어미의 경우와는 다른 특이한 모습이다. 한편 '-어' 접속문은 또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8) 가. 날이 저물어 동수가 돌아왔다. (이유, 시간)
 나. 김씨가 서울에 가 큰돈을 벌었다. (나열, 이유)
 다. 유미가 장대 끝에 갈고리를 매달아 감을 탄다. (나열, 방법)
 라. 경찰이 잠복을 해 도둑을 잡았다. (방법, 이유)

위에서 보듯이 '-어'가 쓰인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결어미가 명시적인 관계적 의미에서 중의성을 보이는 것은 '-고'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동일한 형태의 ‘-어’가 접속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어’ 이외의 접속어미의 경우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또한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동사 구성, 어말어미의 ‘-어’가 접속문의 ‘-어’와 동일하다고 볼 경우, ‘-어’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더해진다. 접속 구성에서 ‘-어’가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며 중의적인 속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보조용언과 합성동사구성에서 ‘-어’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우리는 ‘-어’가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과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는 여타의 연결어미와 같은 그 자체가 갖는 특정한 관계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어’가 의미적으로 무색투명하여 무의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어’가 특정한 관계 의미를 갖지 않는데도 실제로 앞에 보인 것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원리를 찾는다면 이런 가정이 참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어’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8)에 제시된 ‘-어’ 구문에서 선행절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8)에서 선행절은 실재하는 사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선행절은 사실성(realis)을 지닌 사태다. 따라서 (8가-라)의 ‘철수가 집에 가-’, ‘밤 10시가 되-’, ‘철수가 침을 바르-’가 사실 명제로 제시되고 있다.⁴⁾⁵⁾ 이렇게 볼 때 특별한 관계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어’는 이 경우 사태의 성립을 나타내는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는 접속문의 연결어미이므

4) 이는 ‘-은들’이나 ‘-면’이 도입하는 명제는 화자의 발화시에 실재하는 명제가 아니라 비사실명제이며, ‘-었더라도’ 등에 의해 도입되는 명제는 반사실 명제라는 점과 대비된다.(박재연 2009 : 121)

5) 사실 명제는 현실 세계에 지시 대상을 갖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로 당연히 이로 인하여 성립된 사태는 진술로서 종료되지 않고 후행절과 의미적 관련을 맺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성립된 선행 사태를 후행절과 의미적으로 관련시키는 자질(이를 [+관련적] 자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⁶⁾⁷⁾

여기서 '-어'가 특정한 관계적 의미를 갖지 않는데 어떻게 접속문에서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가 문제다. '-어'가 단순히 (순차) 나열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6가)의 경우 '-어'에 의해 '철수가 집에 가'라는 사태가 성립되고 이 성립된 사태가 '(철수가) 밥을 먹-'이라는 후행절 사태와 관련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어'가 특정한 관계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면 '-어'에 의해 도입되는 사태와 후행하는 사태의 관계 의미는 문맥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가)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우리의 화용적 지식을 고려할 때 문맥상 특별한 논리적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태는 단순히 나열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선행절이 후행절에 시간적으로 앞섬을 보이기 때문에 순차 나열로 해석된다.

한편 (7가)에서도 의미적으로 무색투명한 '-어'가 선행절 사태를 성립시키고 이를 후행절과 관련시킨다고 볼 때 문맥에 의해 두 절 간의 관계가 결정되어야 한다. (7가)에서는 성립된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이에 특별히 문맥적으로 추론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절이 시간을 나타내므로 후행절에 대한 시간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는 시간 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6) 이시형(1990 : 16)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관여성을 갖는 것을 [-방벽] 자질로 표시한다.

7) 우리는 '-어'의 사태 성립적 기능과 [+관련적] 자질을 남미혜(1996)에서와 같이 하나로 묶어 '-어'의 기능을 '사태유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가 항상 성립된 사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두 기능을 제시하기로 한다.

볼 수 있다.

(7나)에서는 ‘-어’로 인해 ‘철수가 우표에 침을 바르-’는 사태가 성립되고 이 사태가 ‘철수가 우표를 붙이-’라는 명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추론되는 다른 논리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근본적으로는 역시 두 명제가 나열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용상 선행 동작은 후행 행위를 이루기 위한 주어의 선택 가능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6나)에서 ‘-어’는 어떻게 ‘이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가? (6나)의 이유는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어’ 구문이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인과관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과관계는 그 요건으로 시·공간적 인접성, 시간적 선·후관계에 의한 계기성, 상례성/필연성을 요구한다(최상진, 임채훈 2008 : 130). ‘-어’가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시·공간적 인접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어’는 사태 성립의 기능을 갖는다고 했다. 이 사태는 사실명제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만약 이 사태가 후행절 사태에 인과관계의 한 조건이 되려면 이 사태가 후행 사태와 인접되어야 한다. ‘-어’는 선행 사태를 후행 사태와 관련시키는 [관련적] 자질이 있다고 했는바, 실제 존재하는 사태를 후행하는 사태에 관련시킨다는 것은 곧 ‘-어’로 인하여 두 사태가 인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가 선행 사태를 후행사태에 인접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 앞에 시제요소나 양태요소 ‘았’, ‘겠’이 올 수 없다는 사실로도 분명하다. ‘-어’ 앞에 ‘았’이나 ‘겠’이 오면 선행 사태가 과거 사태나 비사실 사태/미래 사태가 되어 사실성 사태가 되지 못하므로 후행사태와 인접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어’ 앞에 시제나 양태 요소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은 ‘-어’의 사태 성립의 기능이 두 사태를 인접시킨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과관계의 두 번째 조건인 계기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어'가 제시하는 사태는 사실성 사태다. 접속문의 논리상 선행절이 사실성 사태일 경우 결코 후행절은 시간적으로 이 사태를 앞설 수 없다.⁸⁾ 따라서 '-어'에 의해 도입되는 사태는 후행절에 항상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어'의 기능 중의 하나를 순차 나열로 보는 것도 '-어' 구문의 이런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는 인과관계의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조건, 상례성/필연성은 설명이 필요하다. 물질 세계 외의 세계에서는 한 사태가 다른 사태(결과 사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도 그 원인이 되었던 사태가 항상 동일한 결과 사태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두 사태간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 자연적 인과법칙이 아닌 경우의 인과관계는 두 사태 간의 관계가 항상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인과관계든 인간은 인과관계를 경험에 근거하여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⁹⁾ 우리는 경험적으로 A와 유사한 사태 이후에 B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한 후 이것이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상례화되면) A와 B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인과관계의 한 요건이 필연적이든 상례적이든 이는 예외없이 화용론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연성/상례성 조건은 두 사태가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이해되면 필연성 조건은 문맥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 접속문에서는 '-어'의 관련성 자질로 인해 두 사태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화용론적으로만 뒷받침되

8) '-러', '-려고' 접속문의 경우 논리적으로는 후행절이 선행절보다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들 어미에 의해 도입되는 절이 사실성 사태가 아니다.

9) 이는 상례성과 관련된 문제다. 상례성은 A와 유사한 사태가 있을 후에 B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것은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다.(최상진, 임채훈 2008 : 130)

면 ‘-어’는 상례성/필연성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는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조건인 시·공간적 인접성, 시간적 선·후관계에 의한 계기성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상례성은 문맥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화용론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필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인과관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관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속성을 갖지 않은 ‘-어’가 접속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어’가 무의미성을 지니고 사태 성립 기능, 관련성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접속문의 선·후행절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의 의미적 무색투명성에서 연유된다는 사실이다. 사태의 성립 기능, 관련성 기능은 다른 연결어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가 사실성(realis)을 지닌 사태를 성립시키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는바, 많은 접속어미가 사태 성립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 (9) 가. 철수는 가고 재문이가 온다.
 나. 이로가 바쁘니까 진희가 그냥 가더라.
 다. 눈은 내리지만 날씨는 포근하다.
 라. 그녀는 푹푹하나 게으르다.
 마. 비가 그치기에 외출을 한다.
 바. 날씨가 추우므로 그만 철수합시다.
 사. 영희가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본다.
 아.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 축구를 한다.
 자. 철수가 돌아오자 미자가 화를 냈다.

여러 가지 연결어미가 쓰인 위 예문들에서 선행절은 사태가 성립,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발화시나 인식 시에서 실제로 이들 어미가 결합된 선행 사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때 이들 어미 ‘-고’, ‘-니까’, ‘-지만’, ‘-나’, ‘-기에’, ‘-므로’, ‘-면서’, ‘-는데’ 등은 사태 성립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이처럼 선행절이 사태의 성립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쓰인 연결어미들은 ‘-어’와 달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못한다. 이들 어미가 쓰인 접속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분명한 관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문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이들 어미가 가진 내재적 의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 동일하게 사태 성립적 기능을 갖는 ‘-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는 바로 ‘-어’가 접속어미로서 그 자체로는 명백한 관계적 의미를 지니지 않고 무의미성을 지니는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다른 모든 연결어미는 후행문과의 의미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관련적] 자질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가 가진 독자적 기능은 무의미성이다. 따라서 ‘-어’ 접속문이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의 무의미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의 사태 성립으로서의 기능은 이 어미의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모든 다른 접속 의미도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관련적] 자질을 갖는다고 보았는 바, 우리는 여기서 ‘-어’의 관련성 기능 자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는 내재적으로 관계적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이의 [관련적] 자질 기능은

10) 이들 어미는 ‘-어’와는 달리 ‘았’, ‘겠’ 등의 선어말 어미를 허용한다. 만일 이들 어미 앞에 이들 시제 어미나 양태 어미가 오면 발화시나 인식시에서 직접 지각 가능한 사실성 사태가 될 수 없다. 한편 ‘-더라도’, ‘-면’, ‘-어야’ 등은 사실 명제를 이루는 사태 성립적 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11) ‘-어’의 경우는 다른 어미들과는 달리 상태 성립의 기능이 본유적이다.

어떻게 기원되며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가 접속어미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고,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가지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나, 이의 기본 의미는 ‘나열’이며,¹²⁾ ‘-어’와는 문맥적 기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의 [관련적] 의미 자질의 성격 규명을 위해 ‘-어’를 ‘-고’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 (10) 가. 미자는 도서관에 ??가고/가 친구를 만났다.
 나. 철수는 늦잠을 ?자고/자 지각을 했다.
 다. 철수가 의자에 *앉고/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라. 저녁이 되고/되어 그들이 돌아왔다.
 마. 철수는 아버지를 ?찾고/아 미국에 갔다.

위 예에서 선/후행절이 ‘-어’로 연결된 문장은 적격하며 이들은 각각 (순차적) 나열, 이유, 방법, 시간,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나 ‘-고’로 연결된 경우는 (10다)를 제외하고는 성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자연스럽게 않다. 이때 ‘-어’ 접속문과 ‘-고’ 접속문과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두 사태가 의미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두 사태가 의미적인 관련성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두 사태가 의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후자는 두 사태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고’는 비록 두 사태를 연결하지만, 이들이 의미상 의존적이지 않고 관련성이 없는 개별적인 두 사태를 단순히 나열하는 기능만을 갖는다. 다시 말해 ‘-고’의 주 기능은 개별적인 나열이라고 할 수 있다.¹³⁾ 반면 ‘-어’는 두 사태를 의미상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

12) ‘-고’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나 그것의 기본적인(상황 중립적) 의미는 나열이다(박종갑 2000).

13) 이은경(2007)에서는 ‘-고’는 문맥에서 나열, 선행, 동시, 원인, 대조, 조건 등의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의 [관련적] 자질이 '-어'의 접속 구문을 여러 가지 의미 관계로 만드는 중요한 기능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어'가 두 사태를 '-고'처럼 의미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열한다면 위의 '-어' 구문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⁴⁾¹⁵⁾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어미 '-어'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 연결어미 '-어'는 무의미성을 지니며 사태 성립의 기능과 [관련적] 자질을 갖는다.¹⁶⁾

'-어'의 무의미성과 관련하여 '-어' 접속문에 관하여 기왕에 주장되어 왔던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가 순차성을 나타내는지의 문제다.

(12) 가. 심지를 돋우어 불을 밝혔다.

나. 미자는 눈이 커 예쁘다.

다. 8시가 되어 회의가 끝났다.

라. 그는 잃어버린 지도를 찾아 무인도로 출발했다.

14) 여기서 '-어'는 [관련적] 자질이 어디서 기원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어' 자체에 [관련적] 성격이 내재하는지 '-어' 자체에는 이런 성격이 없지만 '-고'의 경우처럼 개별적인 나열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단지 후행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진술 미완이 되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가 문제다.(이 문제는 후술됨)

15) 이시형(1990)에서는 '-어'와 같이 후행절과 선행절이 의미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을 [-방향]이라는 자질로 나타내었다. '-고'와 같이 선/후행절이 의미론적 관여성을 갖지 않는 것은 [+방향]이라 했다.

16) '-어'를 이렇게 보면 임흥빈(1975)의 부정법이나 서정수(1982)의 가짐, 고영근(1993)의 상태의 유지와 성격이 비슷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어'의 내재적 기능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관계적 의미의 형성과정이나 여러 구문에서의 '-어'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위에서 (12가)에서 선행절은 방법을 나타내는데 선행절 행위와 후행절 행위는 동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나)는 이유 구문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형용사라는 점에서 선행절이 후행절에 선행한다고 할 수 없다. (12다)는 계기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8시 시점에 회의가 끝났다고 보면 동시적으로 해석된다. (12라)에서도 선행절 사태가 반드시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 예를 통해 볼 때, ‘-어’ 구문에서 선행 사태가 항상 후행사태를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후행 사태가 결코 선행절 사태를 앞서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가 사태의 성립을 바탕으로 후행절 사태를 연결하므로 후행절 사태가 선행절 사태를 선행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를 항상 선행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한편 ‘-어’가 ‘상태 유지’의 기능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는바(고영근 1993, 남미혜 1996), 이런 기능이 본질적인 기능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는 선행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상태유지’의 기능은 선행 상태 시간대와 후행 상태 시간대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13) 가. 나는 서울에서부터 줄곧 좌석에 앉아 왔다.

나. 밖이 조용해 잠을 깊이 잘 수 있었다.

위 예들은 각각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방법과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때 이들 모두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와 중복된다. ‘-어’에 의한 사태가 유지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상태의 시간대와 후행 상태의 시간대는 항상 겹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는 ‘-어’가 상태 유지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 (14) 가. 동원이가 방에 들어가 책을 가져왔다.
 나. 성수가 사과를 잘라 먹었다.
 다. 비가 와 땅이 질다.
 라. 그녀는 젊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위의 예에서 '-어'는 각각 나열, 방법, 이유, 시간을 나타내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두 사태의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는 사태를 유지시키는 기능보다는 사태 '성립'의 기능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보조용언 구성에서의 '-어'

이제 보조용언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조용언 구문에 대해서는 형태, 통사, 의미적 특징이 충분하리만큼 밝혀졌으나 이 구성에서 '-어'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의 내재적 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심을 두기로 한다. 먼저 예문을 보기로 한다.

- (15) 가. 승호가 책을 읽어 가/버리/두/내/보/-는다

위에서 보조용언은 본동사로서의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상이나 양태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조용언은 접속적 구성이 문법화되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김명희 1996 : 142). 즉, 두 동사가 인접해 있는 연쇄동사 구조 중의 하나인 접속구성에서 발달해 왔음이 보조용언의 출현/생성 환경에서 확인되며 의미론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조용언 구성의 '-어'는 접속 구성의 '-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 구성이 이 구성과는 통사·의미적 성격에서 완전히 다른 접속구성에서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의 내재적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 접속 구성에서는 후행절 동사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이 구문의 관계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보조동사 구문에서는 보조용언이 본동사로 쓰이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선행동사와 보조동사는 직접적인 의미관계를 맺지 못한다. ‘-어’가 기본적으로 접속 구성에서 나왔다고 볼 때, 본동사가 보조용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후행동사의 의미로부터 화용론적 추론이나 주관화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런 원리에 의해 후행 동사인 본동사의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되는데, 이 추상적인 의미가 선행동사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의 무의미성 때문이다. ‘-어’가 분명한 관계 의미를 갖는다면 이 의미 때문에 추상화된 의미의 선행동사로의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용언구성에서도 사태를 성립시키는 ‘-어’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선행동사 앞에는 ‘-았’,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가 올 수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어’가 제시하는 사태는 사실성을 지닌다. ‘-어’ 사태 성립의 의미를 고려하면 보조동사 구성에서 선행동사는 추상화된 보조용언과 문법적 의미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동사와 보조용언은 본동사들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사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동사 구문은 선행동사와 보조동사가 논리적인 의미 관계를 이루지 않고, 성립된 선행동사의 사태에 추상화된 문법적 개념이 통합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 구성에서 선행동사는 본동사로서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후행 동사는 본동사로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적] 자질을 갖지 못한다. 보조동사 구문에서 ‘-어’는 선/후행 동사를 통사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본동사와 추상화된 후행동사의 두 개념을 단순히 의미적으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

17) 주관화에 대해서는 Traugott(1985), 화용론적 추론에 대해서는 Dahl(1988) 참고.

다.18) 지금까지 살펴본 보조용언 구성에서 '-어'의 속성을 정리하면 '-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6) 보조용언 구성의 '-어'는 무의미성을 지니며, 사태 성립의 기능을 수행하고 선행동사에 추상적인 보조용언의 개념을 의미적으로 통합시킨다.

보조용언 구성에서 '-어'의 무의미적 속성과 사태 성립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관련적] 자질은 갖는다고 할 수 없다.

3) 합성동사 구성의 '-어'

V1과 V2가 '-어'로 연결되어 어휘화된 '뛰어나다', '홀러내리다', '숫아오르다', '끌어나다', '들어올리다', '잡아당기다', '건너뛰다', '좋아하다', '부러워하다' 등 합성동사는 두 동사가 통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휘화된 단어로 굳어져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융합된 의미(fused meaning)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19) 즉, 합성동사는 기본적으로는 접속문에서 인접한 두 동사가 한 개념으로 통합되는 원리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시형 1990 : 88).20) 그러나 모든 합성동사를 접속구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합성동사를 구성하는 생산적인 단어 형성 원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21)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의 의미적인 무

18) 보조용언은 형태·통사적인 측면에서 합성동사와 더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선행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 개입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일뿐,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용언 구성은 형태·통사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유혜령 2004). 다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조용언은 합성용언 구성과 통사적 구성의 중간 범주로 이해되기도 한다.(김석득 1986, 김기혁 1987)

19) '-어 하다'는 접미사로 기능하여 합성동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합된 형식이 모두 합성동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런 경우를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20) 합성동사의 '-어'는 향가에서도 확인된다.(황선엽 2010 : 96)

21) 현재 쓰이는 모든 합성동사가 접속문에서 인접한 두 동사에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

색투명성 때문이다. 합성동사가 접속 구성에서 어휘화되었다는 것은 독립성을 지녔던 두 개념이 한 개념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가 분명한 관계적 의미를 지닌다면 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합성동사 구성에서 ‘-어’는 형태·의미적으로 V1과 V2를 통합시키는 기능 외에 다른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²²⁾ 합성동사 구성의 ‘-어’의 무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용언에서 그 어휘적 구성 요소인 V1과 V2 간의 관계가 통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동사가 어휘화되어 융합된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 경우는 ‘-어’가 [관련적] 자질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관련된 문법 단위의 의미적인 독립성을 전제하여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접속구성, 보조용언 구성에서의 ‘-어’는 사실명제와 관련되므로 ‘-어’의 성립으로서의 기능이 사태와 관련되었다. 그러나 합성동사 구성의 ‘-어’는 어휘화된 형태 내부의 동작과 관련되므로 발화시나 인식시에 성립되는 사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어’가 사태를 성립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어휘 내부의 V1과 V2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경우도 V2가 V1에 결합되어 두 동사가 하나의 동작으로 융합된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어’는 V1의 동작을 성립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태와는 무관하지만 ‘-어’는 ‘성립’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합성동사 구성에서 ‘-어’는 기본적으로는 ‘성립’을 나타내지만 이 구성에서 결과적으로는 ‘-어’가 두 개념을

다. 왜냐하면 ‘뛰어넘다’는 논리적으로 가능하여 접속구성에 나타날 수 있으나 합성동사 ‘건너뛰다’, ‘뛰어나다’ 등은 접속구성에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두 동사의 개념적 통합 원리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2)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용언 구성은 선/후행 요소가 형태·의미적으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보조용언은 선행동사에 통합되어 어휘화 되는 것이 아니고 양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통합되어 어휘적 차원에서 개념이 융합되는 합성용언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동사 구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유혜령(2004 : 279) 참고.

의미적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동사 구성의 '-어'의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합성동사 구성에서 '-어'는 무의미성을 지니며 성립의 기능을 수행하고 두 동사를 의미적으로 통합시킨다.

4) 종결어미에서의 '-어'의 기능

종결어미는 문장을 형태적, 의미적으로 완결 짓는 형태소다. 종결어미 '-어'는 연결어미나 보조동사 합성동사 구성의 '-어'와 동음형태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고영근 1974, 고광모 2001), 대부분의 논자들이 종결어미도 다른 경우의 '-어'와 기원이 같은 것으로 본다. 만일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의 '-어'에서 다른 경우에 쓰이는 '-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 종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그것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나타내는 언어적 환경과 납득할 만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면, 종결어미의 '-어'도 다른 경우의 '-어'와 기원적으로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어'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어'의 본질적 속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종결어미의 '-어'도 다른 경우의 '-어'와 같은 형태소라고 보는 견해에서도 이의 기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견해로 나뉜다. 먼저 '-어'가 보조용언의 '-어'에서 기원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종결어미 '-어'는 보조용언 구성에서 보조용언이 삭제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본다(김정대 1983 : 14, 김태엽 1998 : 181). 또한 종결어미의 '-어'가 접속문에서 후행절이 생략되거나 선행절과 도치되는 현상에서 기원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현희 1982 : 159-161, 서정목 1987 : 105-25).

한편 종결어미 '-어'를 포함한 모든 '-어'를 다의형태소로 보는 입장이지만 종결어미 '-어'는 접속 구성이나 합성동사 구성, 보조용언 구성의 '-어'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고, 이들 구성과 무관하게 향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영준 1996).²³⁾ 만일 향가에 보이는 감탄사로 분류된 ‘이바’(伊波)를 동사의 활용형으로 보아 종결어미 ‘-어’를 분석할 수 있다면 접속구성에서 보조용언의 문법화가 향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지 않는 한, 종결어미 ‘-어’가 보조용언구성의 ‘-어’에서 기원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보조용언의 생성은 현재로서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용언은 중세국어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종결어미 ‘-어’의 기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보면 이는 접속구성의 ‘-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가 접속구성에서 나왔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나온 ‘-어’가 19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출현한다고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서정목 1993). 만일 향가자료에 ‘이바’에서 종결어미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면 그 간격이 너무 크며 18, 19세기 이전에는 접속문에서 후행절의 생략은 불가능했다는 논리가 성립됨으로써 그 기원은 더 오래일 수 있을 것이다.

종결어미의 ‘-어’가 연결어미나 합성동사의 ‘-어’와 동일한 성격의 형태소인지 아닌지, 만일 동일한 형태소가 각 구성에서 다의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라면 이것이 보조용언 구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독자적인 ‘-어’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논자들이 그 파생적 기원과 무관하게 종결어미의 ‘-어’를 접속구성이나 보조용언 구성의 ‘-어’와 결국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것은 종결어미의 ‘-어’에서 다른 구성의 ‘-어’가 갖는 공통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비록

23) 박영준(1996)에서는 향가 총결무진가와 보개회향가에 나타나는 이파(伊波)가 ‘이봐’로 읽히는바, 여기에서 반말체 종결어미 ‘-어’가 분석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의 한글표기 ‘이바’가 19~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역시 종결어미 ‘-어’가 분석될 수 있는 ‘두워’ 형태 16~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함을 보이고 있다.

24) 김명희(1996 : 142)에서는 보조용언 ‘버리다’의 문법화는 15세기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른 기능 변인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어'가 출현하는 모든 환경에서 '-어'의 핵심적 기능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8) 가. 철수가 밥을 먹(었/졌)어.
 나. 철수가 밥을 먹(었/졌)어?
 다. 철수야, 밥을 먹어!
 라. 철수야, 우리 같이 밥 먹어.

종결어미 '-어'의 다른 어미와의 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이 어미가 네 가지 문장 종결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연결어미 '-거든', '-니까', '-는데', '-지', '-게', '-고' 등은 문말 위치에서 각기 다른 억양에 놓여도 결코 다른 네 가지 의향법 어미로 쓰일 수 없다. 전형적으로 종결어미는 문장종결소를²⁵⁾ 가지고 있고 그 경우 오직 하나의 문장 종결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가 네 가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의 접속 구성 보조용언 구성 합성동사 구성이 가지고 있는 '-어'의 무색투명의 무의미성을 종결어미 '-어'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의 연결어미로서의 형성 과정과 무관하게 이것이 나타나는 모든 구성에서 '-어'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결어미 '-어'가 다른 경우의 '-어'와 동일하다고 할 경우 종결어미가 놓이는 형태·통사적 환경이 접속 구성, 보조용언 구성, 합성용언 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어'가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위치에서의 '-어'가 지닌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이는 다른 기능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종결어미로 쓰이는

25) 문장종결소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소를 말한다.(김태엽 1998 : 171)

‘-어’는 접속 구성에서 ‘-어’가 가졌던 [관련적] 자질은 갖지 않는다. ‘-어’ 뒤에 다른 어떤 문장 성분도 오지 않고 ‘-어’가 문장 종결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

한편 종결어미에서 ‘-어’의 성격과 관련된 또 다른 차이는 ‘성립’과 관련된 것이다. 연결어미나 보조적 연결어미로서의 ‘-어’는 이 어미 앞에 ‘았’, ‘겠’ 등 선어말 어미가 올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경우 사태 성립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종결어미는 예에서 보듯이 ‘았’, ‘겠’을 선행시킬 수 있다. 이는 다른 경우의 ‘-어’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다. ‘-어’ 앞에 ‘았’, ‘겠’이 오면 이는 사실성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았’, ‘겠’이 개입되면 발화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태를 나타내는 명제가 될 수 없다. ‘았’은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겠’은 시제와 상관없는 양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어’는 사태의 성립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어’ 앞에 ‘았’, ‘겠’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았’, ‘겠’이 사태의 성립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았’, ‘겠’이 결합되는 경우 ‘-어’는 사태와는 무관한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는 단지 용언형의 성립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고려하면 종결어미에서 ‘-어’의 본질적 속성은 용언형의 성립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결어미 ‘-어’는 형태론적 폐쇄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어미도 형태론적 폐쇄 기능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분명한 내재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가 용언형의 성립 기능만을 나타낼 수 있어도 여타의 어미들과는 달리 문말 위치에서 4가지 상이한의 항법 어미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어’의 무의미성 때문이다. 무의미성을 지니고 형태론적 폐쇄 기능만을 수행하는 ‘-어’에 문장 종결소적 기능을 갖는 각기 다른 억양이 놓이기 때문이다. 한편 ‘-어’가 종결어미 환경에서 사태 성립적 기능을 갖는데도 진술 완료적 기능을 보이는 이유는 ‘-어’의 수행 억양이 문장 종결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밝혀진 종결어미 '-어'의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종결어미 '-어'는 무의미성을 지니며 용언형의 성립 기능을 수행하고 문장을 종결시킨다.

5) 어의 내재적 속성/기능과 부차적 기능

지금까지 논의한 접속 구성, 보조용언 구성, 합성동사 구성, 종결어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어'의 속성은 '무의미성'과 '성립'이다. 따라서 이는 '-어'의 본질적인 내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내재적 속성이 각 구성, 분포에서는 어떤 원리로 추가적 자질을 획득하여 그 구성/분포에서 '-어'가 그 자체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가이다.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접속문과 보조용언 구성에서는 '-어'는 '사태'의 성립 기능을 갖는다. '-어'가 절이 아닌 형태의 내부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성립의 속성을 갖되 '사태'와 무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가 사태를 성립시키는 것은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에서 '-어'가 절을 이루는 동사에 통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가 절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일 때 사태의 성립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았', '겠'이 '-어'에 통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본질적 속성으로 용언형의 성립이라고 보았던 것을 고려할 때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에서의 '사태'의 속성은 '-어'가 이들 선어말어미에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구성에서 '-어'가 선어말어미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어'의 무의미성과 관련이 있다. '-어'가 무의미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접속문의 경우는 선행사태 속에서 후행 사태가 문맥적으로 관련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사태이어야 하는바, '았'이나 '겠'이 통합되면 사실성 사태가 될 수 없다.

한편 접속구성에서의 [관련적] 자질은 '-어'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

를 고려할 때 본질적 속성은 아니다. 본질적 속성이 아닌데도 접속구성에
서 이 자질을 갖는 것은 완전히 이것이 놓이는 통사적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접속 구문에서 ‘-어’는 사태성립의 기능을 갖지만 본질적으
로는 진술 완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선행절과 의미적 관계
를 맺을 수 있는 후행절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적] 기능이 부수적
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용언 구성에서는 선
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독립적으로 의미적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어’가
[관련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더 분명히 이해된다. 이 경우
는 ‘-어’의 성립적 기능으로 인하여 V1과 V2가 구조적, 의미적으로 밀착성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 ‘-어’ 앞에 ‘았’, ‘겠’
을 선행시킬 수 있는 것은 ‘-어’로 성립된 용언으로 끝난 문장이 후행절과
맺는 관계가 없으므로 굳이 ‘-어’가 제시하는 문장 내용이 사실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가 출현하는 각 구성/환경에서 ‘-어’의
부차적인 기능을 제외할 때 ‘-어’의 환경 중립적인 내재적 속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0) ‘-어’는 내재적으로 의미상 무색투명성의 속성, 즉 무의미성을 지니며
용언(형)의 성립 기능만을 갖는 형식 형태소이다.

‘-어’의 본질적인 속성과 기능을 무의미성과 성립이라고 할 때, 이는 ‘-어’
를 단지 허형태소나 형태론적 단합 요소로 본 견해와 유사해진다. ‘-어’를
허형태소라 부르든 형태론적 단합 요소라 부르든 각 구문에서의 허형태소의
기본적 내재적 기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바, 본고에
서는 ‘-어’의 본질적인 속성과 기능을 구명하고 이것이 나타나는 각각의
구성/환경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특성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것이
놓이는 언어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6) '-어'의 완료상 기능 여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가 완료의 상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Ramstedt(1939) 이후 이어져 왔다. 완료는 시작점, 종결점, 끝점을 가진 상황 유형의 끝점에서 행동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가 완료 기능을 갖는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통사 환경에 출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환경에서 완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드러났듯이 '-어'는 접속 구성에서는 '사태 성립'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성립의 기능은 완료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1) 가. 주희가 집에 가 숙제를 했다.

나. 이로가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한다.

'-어'는 (21가)에서는 순차나열, (21나)에서는 순차나열/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순차나열은 당연히 사태가 성립된 것을 나타내므로 선행 사태가 완료로 해석된다. (21나)가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순차나열을 전제하므로 선행절 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된다. '-어'가 완료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는 바로 이 경우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의 용법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된 것이다. 접속구성에서도 '-어'가 순차적 나열로 쓰이지 않는 경우는 완료의 기능이 나타나기 어렵다. '-어'가 완료와 무관함을 나타내는 예는 충분할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어'의 출현 환경에 따른 예를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한다.

먼저 '-어'가 접속 구성에 쓰이는 경우에 완료를 나타낼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어'는 형용사 및 '이다'와 통합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완료의 개념 적용이 불가능하다. 완료는 시작, 중간, 끝이라는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이들은 상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는 사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계속’과 같은 부사에 의해 수식 받는 동사에 통합되거나 ‘계속하다’와 같은 동사와 통합되어 쓰일 수 있다.

(22) 가. 비가 계속 내려 축구를 할 수 없다.

나. 이로가 집짓기를 계속하여 한 달 만에 완성했다.

이들 동사는 시작점, 내부 단계, 끝점에서 행동이 완성되지 않고 이어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완료와 무관하다. 셋째, 선행 동작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속되어야 이해되는 다양한 구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어’의 완료상적 기능을 의심케 한다.

(23) 가. 바람이 불어 눈을 뜰 수 없다.

나. 새가 날아 남쪽으로 간다.

(23가)에서 선행동사 ‘불다’의 동작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한 후행절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동작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후행절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다. 또한 (23나)에서도 새가 날아가는 동작을 완료되었다고(마쳤다고) 보는 한 후행절은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실도 ‘-어’가 완료로 이해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보조용언 구성의 ‘-어’의 경우에도 완료기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다수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보조용언 구성은 합성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바, ‘-어’가 완료된 사태를 후행의 보조용언과 연결한다는 것은 직관상 납득되기 어렵다. 또한 보조용언 구성에서 ‘-어’가 완료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동사 ‘가다’, ‘오다’가 진행상을 나타낸다는 사실, 보조용언 구성에서 선행용언으로

형용사나 '이다'가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이다. 보조용언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바, 이 또한 '-어'가 완료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어'가 중복된다는 것은 완료가 중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합성동사 구성은 어휘적 구성이다. 이 경우 완료라는 상적 요소가 V1과 V2의 형태론적 구성에 설정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종결어미의 '-어'의 경우, 이 어미는 완료를 비롯한 다른 시제와 관련된 요소를 선행시킬 수 있으며 완료와 무관한 명령이나 청유문의 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완료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요컨대 '-어'는 특정한 환경에서 문맥적으로 완료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완료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여러 가지 구성/환경에 나타나는 '-어'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형태소라는 견해는 이른 시기부터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과 접속 구성에서의 '-어'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어'의 기능적 실체의 일면이 여러 가지 관점과 용어로 파악되었다 할 수 있다. 용어와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가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사실도 지적되었고 허형태소라거나 형태론적 닫힘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환경에 나타나는 '-어'가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각기 다른 형태·통사적 위치에서 상이한 형태, 통사, 의미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가 보이는 분포적 환경과 그 구성의 성격이 달라, 이의 기능도 이

분포 환경이 요구하는 형태·통사적 특성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다양한 '-어'의 분포에서 이것이 드러내는 기능도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어'의 실체적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것이 타나나는 여러 환경에서 '-어'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각각의 환경에서 '-어'가 나타내는 원형적 의미에 해당하는 본질적 속성은 무엇이며 '-어'가 이루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어'는 어떤 자질을 얻게/잃게되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어미 '-어'를 이것이 나타나는 다양한 분포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접속구성, 보조용언 구성, 합성동사 구성, 종결어미 자리 등 각기 상이한 형태·통사적 위치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본질적 속성과 기능을 밝히고 이것이 나타나는 각각의 구성/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기능과 특성을 밝힘으로써 모든 구성/환경에 나타나는 '-어'를 유기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논의 결과 '-어'가 출현하는 모든 구성/환경에서 '-어'는 본질적으로 무의미성을 지니며 용언을 성립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어'는 각 구성/환경에서 부차적인 기능과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분포상의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과 관련되는 '사태', 접속 구성에서의 [관력적] 자질, 보조동사 구성과 합성동사 구성에서의 '의미적 통합' 기능, 종결어미에서의 '문장 종결소적' 기능 등은 모두 그 구성/환경에서 기인하는 기능이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어'가 완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기왕의 주장을 비판하고 이는 자체로는 완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며 완결적 기능은 순차 나열에서 오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참고문헌】

- 강현화, 「동사 연결 구성의 다단계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5.
- 고광모, 「반말체의 등급과 반말체의 어미의 발달에 대하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2001, pp.3~27.
- 고영근,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4, pp.118~157.
- 김명희, 「문법화의 틀에서 보는 보조동사구문」, 『담화와 인지』 2, 1996, pp.129~146.
- 김승곤, 「상태지속 연결어미 {아}에 대하여」, 『논외 허응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1978.
- 김정대, 「(요)청자 존대법에 대하여」, 『가라문화』 2, 1983, pp.129~167.
- 김태엽,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 1998, pp.171~189.
- 남미혜, 「국어의 연속 동사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6.
- 박영준, 「국어 반말 종결어미의 역사성-‘-어’와 ‘-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 민족어문학회, 1996, pp.97~118.
- 박재연, 「연결어미와 양태」, 『한국어 의미학』 30, 2009, pp.119~141.
- 박종갑,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3)」, 『국어학』 35, 2000, p.93~111.
- 서정목,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1987.
- _____, 「국어 경어법의 변천-활용 형태소를 대상으로-」, 『한국어문』 2, pp.107~145.
- 서정수, 「국어의 용언의미 어(서)」,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1971.
- _____,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8, 한국외대, 1982.
- 서태룡,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7.
- 성기철, 「어미 ‘고’와 ‘-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18-20, 1972.
- 손세모들, 「국어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3.
- _____,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1996.
- 심재기, 『국어어휘론』, 집문당, 1982.
- 유혜령, 「학교문법의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하여」, 『청람어문교육』 80, 2004, pp.275~304.
- 이숙희, 「The Syntax and Si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s」, 위싱턴대학교 박사논문, 1992.
- 이시형, 「한국어의 연결어미 ‘-어’, ‘-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0.
- 이현희,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건」, 『국어학』 11, 1982, pp.143~163.
- 임홍빈, 「부정어의 {어}와 상태연결의 {고}」, 『논문집』 8, 국민대, 1975, pp.13~35.

- 장경현, 「연결어미에서 기원한 종결어미의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8, 2012, pp.109~134.
- 정태구, 「Argument Structure and Serial Verbs in Korean」, 텍사스대학교 박사논문, 1992.
- 최상진 · 임채훈, 「인과관계 형성의 인지 과정과 연결어미의 상관성」, 『국어학』 52, 2008, pp.129~152.
- 최재희,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9.
- 최현배, 『우리말본, 여덟 번째 고침』, 서울 : 정음사, 1980.
- 황선엽,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 『구결연구』 25, 2010, pp.83~105.
- Comrie, B.,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Dahl Östen, *Tense and Aspect System*, Oxford : Blackwell, 1985.
- Givón, T., *Syntax 1 :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4.
- Heine, Bernd, *Grammaticalization as an Explanatory Parameter*, In William Pagliuca(ed), 1994, pp.255~287.
- Jackendoff, R.,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1972.
- Palmer, F. R., *The English Verb*, Longman Group Limited, 1974.
- Ramstedt, G. J., *A Korean Grammar*, Helsinki, 1939.
- Smith, Carlota,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Vendler, Z.,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Abstract

The syntactic and semantic functions of ‘-eo’

Koo, Jong-nam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intrinsic property and functions of ‘-eo’ which is a dynamic word final ending. ‘-eo’ is used as a connective ending in conjunction structure, compound verb structure and in auxiliary verb structure. And it is used as a sentence final ending. I discussed the property and functions of ‘-eo’ in every structure in which ‘-eo’ appears and concluded that ‘-eo’ is a empty(dummy) morpheme which has no intrinsic meaning, but it has the function of materialization of situation.

The reason why ‘-eo’ can be used in various different structures is that it has no meanings except the function of materializing situation which is archetypal function of ‘-eo’. By the reason of this property ‘-eo’ can appear in various constructions. Because of this semantic emptiness, ‘-eo’ can be used for four types of sentence final endings.

Key words : materialization of situation, intrinsic property, senselessness, relating, perfect

구종남

소속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664-14

전화번호 : 010-9603-3171

전자우편 : jnkoo@chonbuk.ac.kr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